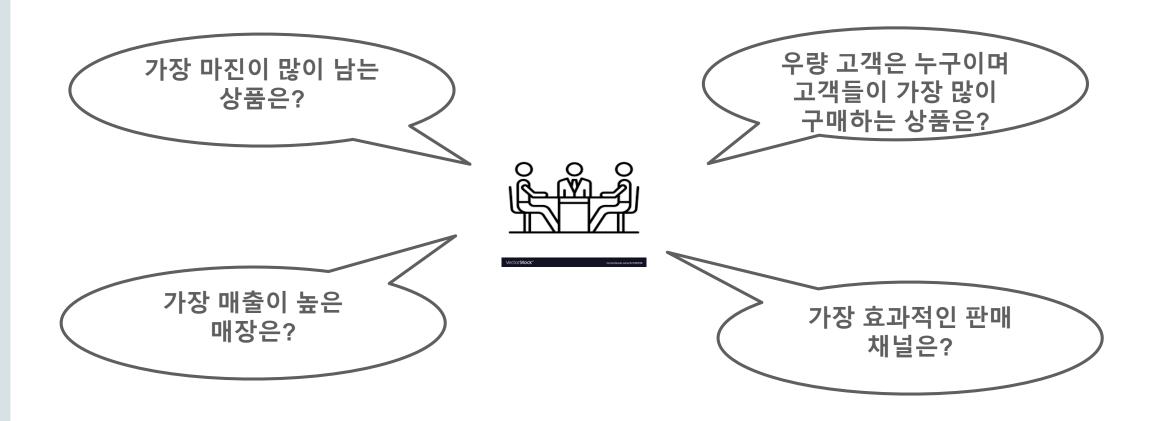
9-1. Data Warehouse System

홍형경 chariehong@gmail.com 2020.01



하지만....

-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어요...
 - → 데이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음
-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요
 - → 전산실에 요청하니 바쁘다고 빨리 안줘요
 - → 얻긴 했어도 데이터가 더 필요한데, 또 요청하자니 눈치 보여요
- 데이터를 확보했지만, 사용하기 어려워요
 - → 원하는 형태로 만들려면 추가로 엑셀로 작업해야 해요

- 데이터 + 창고
- ·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필요에 맞게 선정해 한 곳에 모아 놓은 것
- ·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분석을 쉽게 하도록 데이터 집적
- · 운영 데이터베이스(OLTP)에서 선별한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에 맞게 테이블 재설계 및 데이터 로딩

- OLTP (OnLine Transaction Processing)
 - 데이터 입력, 수정, 삭제 위주
 - 트랜잭션 처리 중심
 - 은행 입출금 시스템, ERP
- OLAP (OnLine Analytic Processing)
 - 데이터 조회 위주 (분석 용도)
 - 특정 주제에 대한 분석과 조회 위주
 - DW (Decision Support System 이라고도 함)
- · DW는 OLTP 시스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 통합해 적재

한 마디로...

OLTP 시스템은 비즈니스를 <mark>운영</mark>하는 역할

OLAP 시스템은 비드니스를 효율화 하는 역할

2. DW의 간략한 역사

- 1980년대 IBM에서 처음 도입
- · 2000년대 초 CRM 열풍으로 DW 시스템 도입 본격화
- · 많은 곳에서 CRM 프로젝트 실패
 - → 데이터를 우선시 해야 하는데, CRM 시스템 구축을 우선시
 - → 시기 상 분석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음 (ERP 도입 초반기)
- · 이후 ERP 도입이 일반화 되고,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후 큰 기업 위주로 DW 시스템 구축
- · 최근에는 중.소기업도 DW 시스템 도입 (BI 툴의 활성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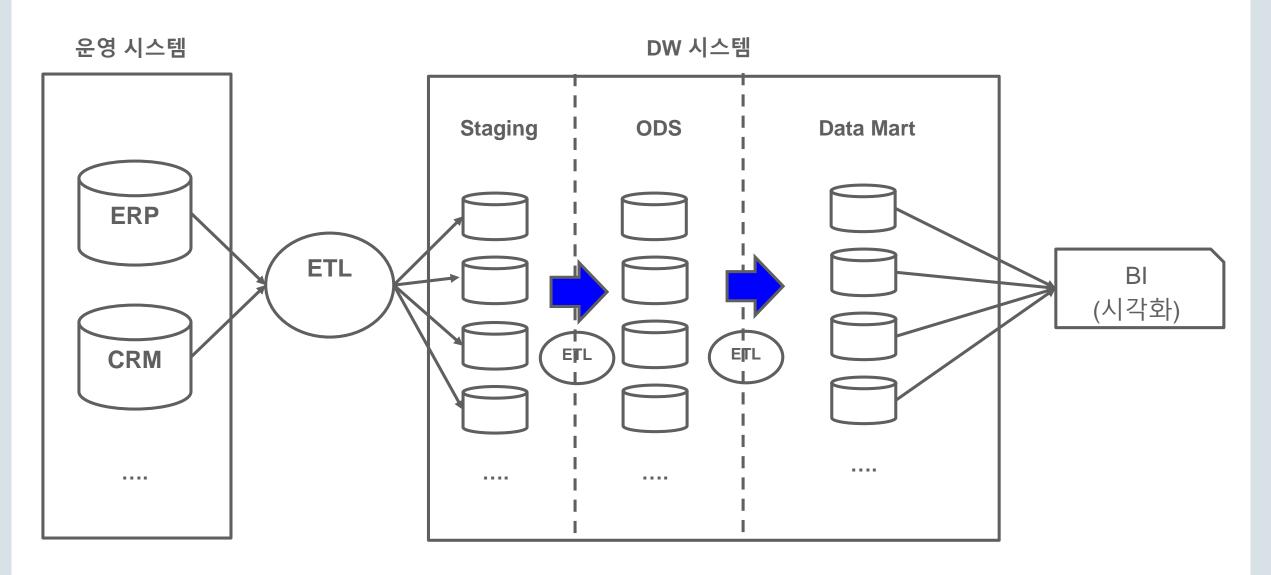
2. DW의 간략한 역사

- · CRM (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) :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
- 기업 입장에서 어떤 고객이 우량 고객인가?
- · 파레토(Pareto) 법칙
 - → 일명 80대 20 법칙
 - → 전체 결과의 80%가 전체 원인의 20%에서 일어난다.
 - → 상위 20%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%를 차지한다.
- · 충성형 고객을 찾아라
 - → 기업에 대한 충성도(loyalty)가 높은 고객
 - → 충성형 고객은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고, 신규 고객도 끌고 옴(입소문)

2. DW의 간략한 역사

하지만...

- · 상위 20% 고객만을 위한 마케팅 집중
- 나머지 하위 고객들을 차별
 - 예, K은행은 50만원 미만 예금주한테 수수료를 물린다고 했음
 - 결국 실행되지 않음
- · 롱테일(Long tail) 법칙
 - → 상위 20% 제외한 나머지 80%도 엄연한 고객
 - → 장기적으로 보면 나머지 80% 고객도 매출 증대에 현격한 기여
- · 이후에는 고객 이탈 방지가 CRM의 큰 목표가 됨



- (1) 운영 시스템
- · ERP, CRM 등 기업 업무 운영을 위한 시스템
- · 트랜잭션 중심 (SQL 관점)
 - INSERT, UPDATE, DELETE 중심
 - SELECT는 좁은 범위에서 실행됨
- 매일, 매시간, 매분 신규 데이터 입력
- 데이터 분석 관점 시스템이 아닌 업무 운영 중심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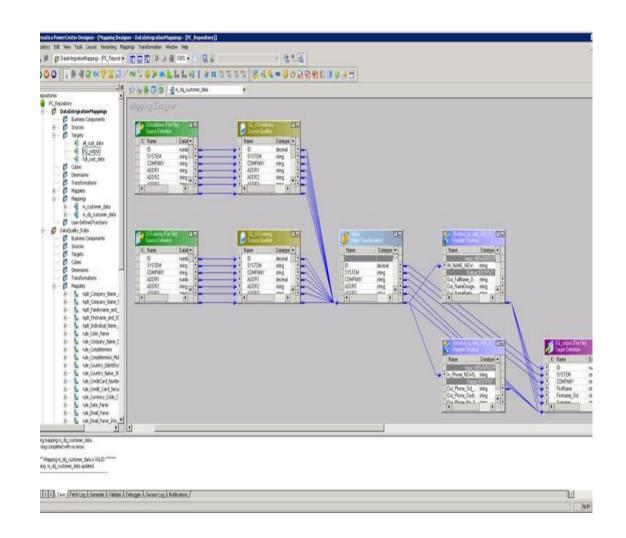
(2) ETL (Extract Transform Load)

- · 원천(source) 운영 DB(시스템)에서 데이터 추출 → 변경 및 가공 → 대상(target) DW DB에 로딩
- · 원천 DB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(Select)해 DW에 로딩(Insert)
- ㆍ수 많은 테이블과 데이터를 추출, 로드 하는데 있어 매우 빠르게 처리
- · 원천과 대상 DBMS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여러 DBMS 지원
 - DBMS별 데이터형 자동 변환
 -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므로 내부적으로 병렬 처리 기능 탑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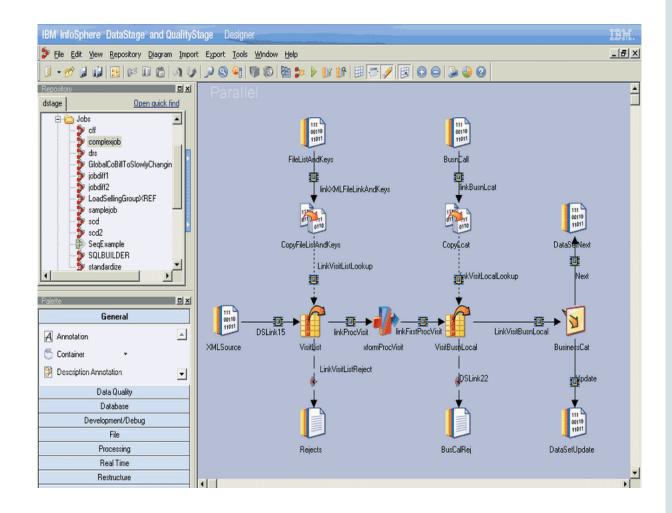
(2) ETL (Extract Transform Load)

- · DW 아키텍처 구성에 따라 원천 → DW 뿐만 아니라, DW 내에서도 Staging → ODS → Data Mart 테이블 적재 시에도 사용됨.
- 스케줄링 기능 지원
- · 대표적인 ETL 제품
 - Informatica Powercenter
 - Data Stage
 - SSIS
 - OGG, ODI, Data Sync

- (2) ETL (Extract Transform Load)
- Informatica Powercenter
 - 가장 많이 사용되는 ETL 제품 중 하나
 - 성능, 사용 편의성 등의 검증을 받아 많이 사용됨
 - 여러 종류의 DBMS 간 변환 기능
 - 병렬 처리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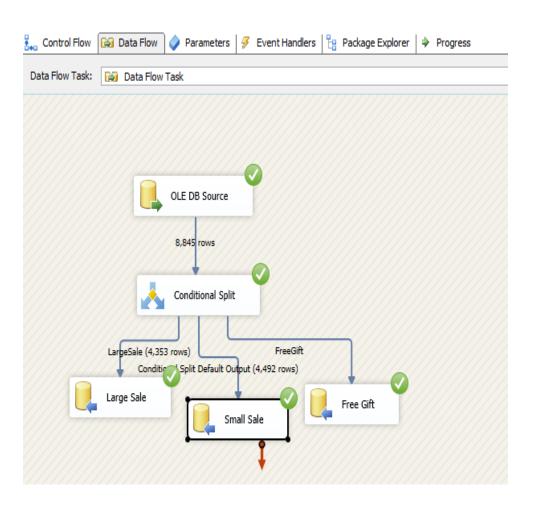


- (2) ETL (Extract Transform Load)
- Data Stage (IBM)
 - InPa와 비교되며 널리 사용되는 제품



(2) ETL (Extract Transform Load)

- SSIS (Microsoft)
 - InPa, Data Stage보다 저렴
 - MSSQL 서버 라이선스 있으면 무료 사용 가능(현재는??)
 - Oracle과는 궁합이 잘 안 맞음
 - 배우기 그리 어렵지 않고 시각적 인터페이스 덕분에 사용하기도 쉬움



(2) ETL (Extract Transform Load)

- Oracle Golden Gate (Oracle)
 - Oracle to Oracle 의 경우 실시간 동기화 가능
 - 매우 고가
- Oracle Data Integrator (Oracle)
 - OGG보다 저렴, 기능은 떨어짐
 - 다른 툴(Infa, SSIS)보다 배우기 어려움
 - ETL이 아닌 ELT
 - → Target DB(DW)의 리소스를 사용해 처리

- Data Sync (Oracle)
 - ODI의 Lite 버전
 - Oracle Cloud에서 ADW, OAC 사용 시 무료로 사용 가능
 - ODI와 내부 동작 방식은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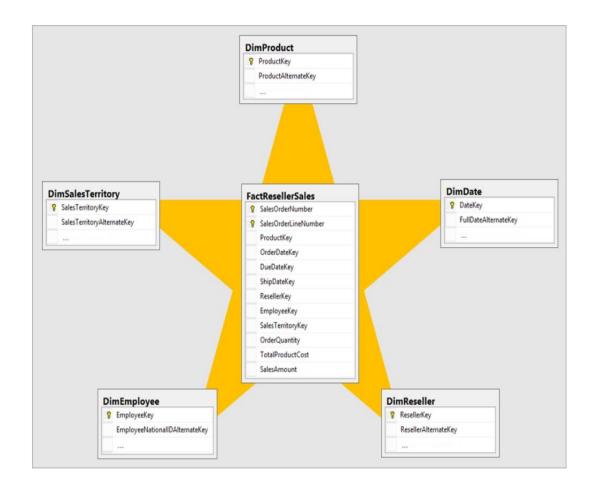
(3) DW 시스템

- Staging DB
 - 원천 DB의 테이블을 그대로 이관
 - 원천 DB와 DW DB간 데이터 불일치 검증 용
 - Staging DB 적재 단계를 생략하기도 함

(3) DW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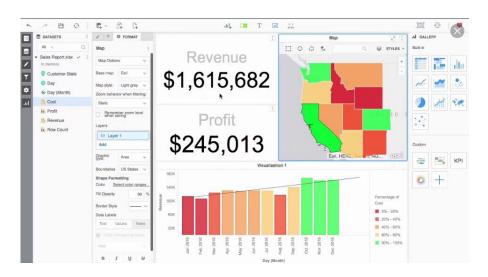
- ODS (Operational Data Store)
 - 원천 DB와 Data Mart 사이의 중단 단계 테이블 집합소
 - Staging 테이블을 읽어 데이터 클린징(Cleansing), 데이터 정합성 보장 처리 작업 후 적재
 - Staging DB 적재 단계가 없다면 ETL로 추출, 변환, ODS에 로딩

- (3) DW 시스템
- Data Mart
 - 분석을 위한 최종 테이블
 - 한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가 많음
 - Fact 테이블, Dimension 테이블로 분리
 - Star Schema, Snowflake Schem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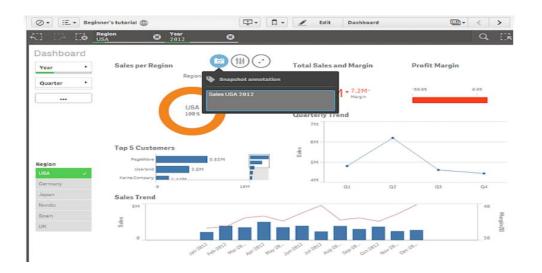


- (4) BI (Business Intelligence)
- · DW 시스템에 있는 Mart 테이블을 읽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각화 Tool
- .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는 현업 담당자가 사용
 - SQL 지식 없이도 시각화, 분석이 가능
 - Drag & Drop 으로 손쉽게 사용 가능
- · 대표적인(?) BI Tool (상용)
 - MicroStrategy, QlikSense, Tableau, OAC(Oracle Analytics Cloud), ...

(4) BI (Business Intelligence)









4. 데이터 분석의 미래

- · DW 시스템은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시각화 해 분석
- · DW에서도 Data Mining 기법을 사용해 데이터 분석 (SAS, SPSS)
- · 이제는 기존 데이터를 토대로 예측 분석하는 AI가 대세
- · 이제는 BI가 아니라 AI다